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중 TV 예능프로그램 자막 사용
유형과 방법 분석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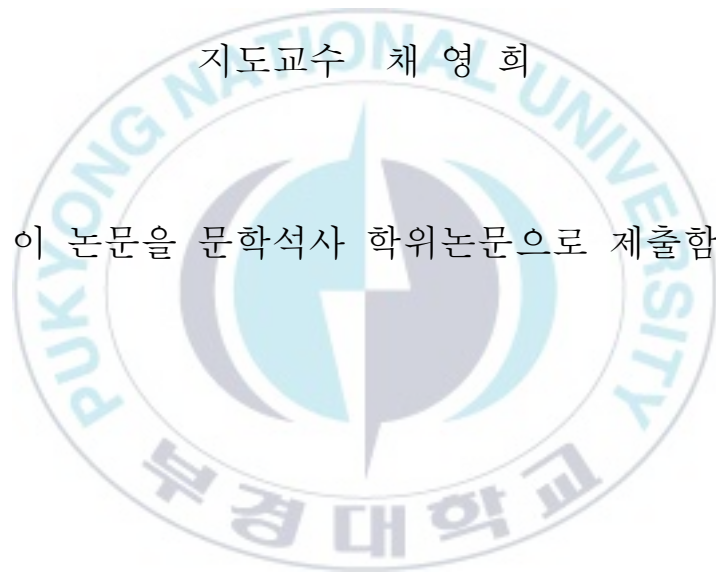
JIN AIHUA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중 TV 예능프로그램 자막 사용 유형과 방법 분석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JIN AIHUA

JIN AIHUA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원장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Abatract	iv
 I . 서론	 1
1.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연구대상과 연구방법	3
3.선행연구	5
 II . 이론적 배경	 11
 III. 한중 tv 예능프로그램의 자막 분석	 21
1. 한중 tv 예능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현황	21
1.1 한중 자막 사용 빈도	22
1.2 한중 자막의 유형 분석	23
2. 한중 tv 예능프로그램의 자막방법 분석	41
2.1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	44
2.1.1 비하·차별적인 표현	44
2.1.2 비속어	48
2.2 외래어·외국어 과다 사용	51
2.3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53
2.3.1 띄어쓰기 오류	53
2.3.2 부정확한 어휘	60

IV. 결론	63
참고문헌	68
국문초록.....	73



표 차례

<표 1> 자막의 유형 및 기능	6
<표 2> 자막의 유형 및 기능	7
<표 3> 자막의 유형 및 기능	7
<표 4> 자막의 유형 및 기능	8
<표 5> 자막의 유형 및 기능	8
<표 6> 자막의 유형 및 기능	9
<표 7> 자막의 유형	9
<표 8> 자막의 유형	9
<표 9> 자막의 기능	10
<표 10> 한국학자들의 자막에 대한 정의	12
<표 11> 중국학자들의 자막에 대한 정의	12
<표 12> 한·중 자막의 유형 분류	18
<표 13> 한중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 조사 대상	21
<표 14> 한중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 노출 건수	23
<표 15> 한·중 자막 유형별 조사 건수	24
<표 16> 한·중 의성어 ‘발화’ 자막	29
<표 17> 한국 조사 항목별 지적 자막 건수 (단위: 건)	42
<표 18> 중국 조사 항목별 지적 자막 건수 (단위: 건)	43
<표 19> 한중 이름 별명 자막	47

Analysis of the types and methods of the use of subtitles in TV entertainment programs in Korea and China

AIHUA J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atract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subtitles is a kind of assistive measure used when the hearing impaired, the elderly, and the recording state are not smooth. Now, the jokes and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speaking person are also appearing. Expresses the problematic utterances of the performers such as expressions and foreign words which do not correspond to the utterance as captions. In addition,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author's intentional boundaries intervened in the study of existing schola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tend to analyze the degree of intervention of program subtitles by introducing the point of view of narrative analysis of subtitles of four television entertainment programs of the two countries. We want to classify the case where the crew 's intention is revealed and whether the crew appears in the caption from the observer point of view.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In Chapter 1, we discuss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previous research.

In Chapter 2, we examine the emergence of subtitles in both countrie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and type of subtitles.

In Chapter 3, we first studied the use of subtitles in TV programs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requency of subtitles usage in both countries, the number of subtitles used in Korean entertainment program is more than the number of subtitles used in Chinese entertainment progra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btitle types in both countries, the number of subtitles in the production crews of both countries [-] is less than the number of subtitles in the crew intention [+]. If the crew's intentions are revealed, it can be seen that both countries have more direct subtitles produced by the production team than indirect subtitles. It can be seen that the number of subtitles that the production crews did not reveal in Chinese subtitles program is much smaller than the number of subtitles produced in Korean subtit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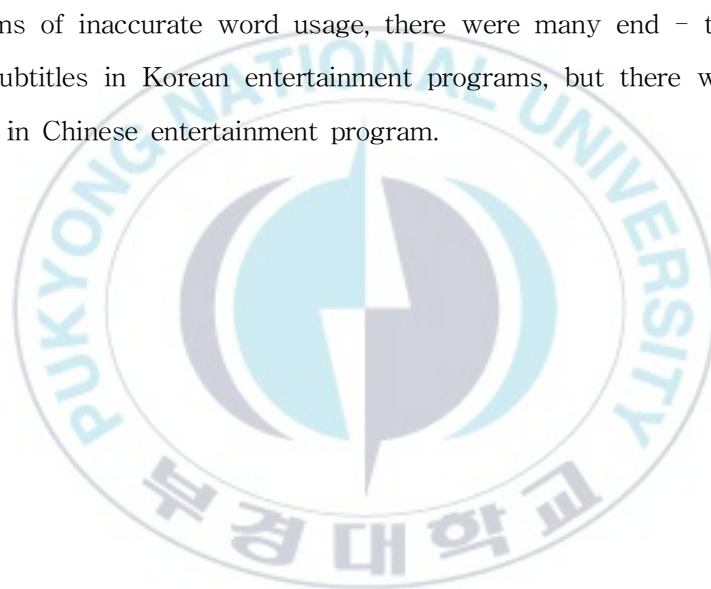
Next, in the analysis of subtitling method of television entertainment programs in both countries, we compared and analyzed expression that is not in accordance with language etiquette, excessive use of foreign language, excessive use of langu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umber of intellectual subtitles of both countries, the number of excessive use of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expression is the highest in Korea, and the following is the number of subtitles of spacing error in expression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utterance. On the other hand, China had the least number of excessive use of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and the number of subtitling errors in the expressions that did not fit the language was the greatest. This is more than Korea. In addition, idiotic and discriminative expressions that are not in accordance with language etiquette are exposed more than in Korea. The use of profanity was less in both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TV entertainment program against language etiquette, the most common use of nickname word caption in HanJung entertainment program. In Korean and Chinese foreign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ere were many subtitles in

foreign language cases in Korea, and subtitles in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appeared in both countries, but there were more subtitles in Korean entertainment program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pacing in expressions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grammar, the production team in Korea uses the punctuation mark for every word to make the viewer 's attention focused. In this case, Chinese subtitles did not show much. Also, in Korea, there are errors in the spacing of nouns and adverbs.

In terms of inaccurate word usage, there were many end - type and end - ending subtitles in Korean entertainment programs, but there were no such phenomena in Chinese entertainment program.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재 한국 방송에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와 달리 시청자들에게 오락적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자막의 사용 건수가 많다. 자막의 원래의 기능은 청각장애자나 노인, 그리고 녹음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일종 보조 수단인데 현재는 발화자의 농담, 심리 상태 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쓰임이 확장되고 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출연자의 상황이나 내용 전달을 위해 자막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대중매체 언어인 자막은 시청자와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연임(2007:6)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인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대본이 사전에 정교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자의 재량에 의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주어진 주제는 있지만 세부 사항 부분에서는 출연자가 발화를 논리적으로 발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자막의 사용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속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 한편, 제작자는 출연자의 행동과 심리상태까지 자막을 통해서 표현하므로 시청자들의 시선 집중을 통한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제작자가 상호 소통하는 데도 직접 사용된다. 한진만·심미선 외.(2006)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은 주말과 공휴일 경우, 지상파 tv의 주 시청 시간대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정하고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한 주시청 시간대는 시청자들의 텔레비전시청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시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 시각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시청 대상은 성인 뿐 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들도 있어서 자막에서 노출되는 단어 문구들은 성인들에게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언어 습득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자막의 과다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워치(2001)¹⁾팀은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오락프로그램에서 자막이 흥미 유발을 위주로 사용되면서 자막의 원래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불필요한 자막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둘째, 자막은 예능프로그램을 제작자 중심으로 주도하여 시청자들의 자율적인 시청에 방해가 되고 시청자들을 수동으로 만든다. 셋째, 자막이 영상을 대체함으로써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넷째, 방송에서 부적절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출연자의 발화를 그대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올바른 언어 습관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방송언어와 관련되는 반말과 사적 호칭, 비속어, 선정적 언어, 비하 표현 등 출연자의 문제적인 발화가 그대로 자막으로 표현 되어 방송에 대해 언어 오염이 확산 될 수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다. 국가 간의 교류도 빈번해지면서 경제 문화의 교류도 서로 밀접하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왕래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중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의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mbc의 '무한도전'과 sbs의 '런닝맨'의 프로그램의 형식을 차용한 중국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중 절강위성에서 방송된 '달려라'와 동광 위성에서 방송된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워치(2001). 자막을 중심으로 본 방송언어의 문제: 방송3사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 분석

극한도전' 4 편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한중 자막의 사용빈도 및 자막의 유형을 분석하고 언어학적 관점에서 자막의 내용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사용과 빈도 분석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두 나라 언어 학습자들에게도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지도가 높고, 시청률이 높으면서 자막의 사용도도 비교적 높은 M B C의 '무한도전'과 SBS의 '런닝맨'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M B C의 '무한도전'은 대한민국 평균 자처하는 남자들이 매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부단히 도전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방송하고 있다. SBS의 '런닝맨'은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 마크를 중심으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그곳에서 제작진이 부여한 과제를 출연자가 해결하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시청자에게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2010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방송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연출자가 개입하는 형태로, 연출자의 의도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잘 드러나는 형태이다. 중국도 인지도가 높고, 시청률이 높은 절강 위성 '달려라'와 동광 위성 '극한도전3'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일 까지 일주일간의 양국의 프로그램 각각 2편을 한정한다.

한중 두 나라의 프로그램을 보면 모두 고정 된 출연자들을 중심축으로 하고 프로그램에 연출자가 개입되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기존 학자들의 연

구를 살펴보면 자막의 유형 분류가 연구자마다 다양하여 제작진의 의도성 경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밝히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사분석의 시점(point of view)을 도입하여 제작진의 프로그램 자막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작진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와 제작진이 관찰자적 관점에서 자막에 등장하는 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출연자가 발화하지 않고 제작진이 직접 개입하여 출연자의 행동이나 표정, 심리, 프로그램의 흐름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자막을 ‘직접’, 출연자의 발화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제작한 자막을 ‘간접’이라고 재분류 한다. 또한 후자는 출연자의 발화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제작한 자막을 ‘발화’, 출연자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제작한 자막을 ‘인용’라고 재분류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자막은 중국 두 편의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되는지, 또한 어떤 다양한 형태로 표현 되는지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한국의 ‘런닝맨’과 ‘무한도전’, 중국의 ‘달려라’와 ‘극한도전3’ 총 4편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작진 의도[+]’와 ‘제작진 의도[-]’의 유형에 따라 한중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빈도 및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 각 프로그램의 자막들을 유형별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자막의 내용을 언어예절에 어긋나는 경우, 외래어·외국어경우,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양국의 자막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방송은 모두 비슷한 시기 한 회 분량에 나타나는 자막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자막이 순차적으로 나오지만 한 화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짧은 자막은 하나로 처리했다.

3. 선행연구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자막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에서 자막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자막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고, 자막 오용 남용 및 개선 방안 및 화용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있다. 중국은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자막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대부분 학자들은 자막의 내용, 색채, 형식 등 속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텔레비전 자막의 표현 형태에 관한 연구와 자막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유형, 기능과 작용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자막 오용 남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서형(2011), 김지우(2004), 권성란(2005) 등이 있다.

박서형(2011)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1박2일'과 '드림하이'를 대상으로 오·남용 실태를 분석하여 심각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방송 언어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권성란(2005)은 텔레비전의 장르 중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어과에서 어떤 교육 내용과 어떤 교육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국어교육에 텔레비전 매체 언어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고찰하고 학교 교육에서 방송 언어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자막 오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許璐(2013)는 자막의 오용 문제에 대해 연구를 했다. 자막을 언어적면에서 '글자', '단어', '격식' 면으로 분류 하였다. '글자'는 틀린 글자, 글자의 줄임, 글자의 추가로 하위분류하고, '단어'는 단어의 오용, 성어의 오용, 신조어의 오용, 외래어 및 준말의 오용으로 하위분류 하여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화용적 측면에서도 자막을 분석했다. 이성범(2011)은 의사소통 행위로서 텔레비전 자막 방송을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는 데 자막의 화용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인간극>

장>에서의 방송 자막과 다른 대표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방송 자막을 분석함으로써 자막 방송의 동기와 의의 및 일반적 의사소통 방식으로의 자연적 대화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현(2010)은 오락 프로그램 광고 뉴스 자막언어를 바탕으로 자막언어의 의미화 양상을 분석 연구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숨겨진 서로 다른 언어 양식의 서술 방식을 고찰하여 매체 차체보다는 언어 양식의 차이에 중점을 두는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아래 한중 자막의 유형 기능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자막의 유형 기능 및 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준식(2004), 강연임(2007), 변영수(2008), 강미영·강승목(2014), 조수선(2013), 이지양(2005), 이성(2003), 한성우(2004), 이혜연(2009), 윤진서(2015), 김현영(2016) 등이 있다.

먼저 한국 학자들의 자막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연임은(2007)은 자막을 발화내용과 발화상황에 따른 자막을 <표1>과 같이 분류했다.

<표 1> 자막의 유형 및 기능

	발화내용과 발화상황에 따른 자막	기능
강연임 (2007)	언어정보처리형 자막 '발화텍스트 원본 제시형' '발화텍스트 요약 제시형' 상황정보처리형 자막 '발화상황 묘사형' '발화내용 평가형'	발화정보의 추론 기능 발화정보의 평가 기능

윤진서(2015)는 자막의 주체와 내용의 연관성에 의해 자막을 분류했다.

<표 2> 자막의 유형 및 기능

	자막의 주체와 연관성에 따른 자막	기능
윤진서(2015)	대화 부연설명 의미부여	소극적 의도 적극적 의도

변영수(2008),김현영(2016)은 자막의 표현 형식, 형태에 따라 자막을 분류했다.

<표 3> 자막의 유형 및 기능

	자막의 표현 형식에 따른 자막		자막의 형태에 따른 자막
변영수(2008)	발화제시형 의도적 제시형 '혼합형' '제작자의 의도적 제시형' 상황 설명을 위한 객관적 서술	김현영(2016)	기본적 정보 정달형 제작진 의견 제시형 출연자 발화 인용·요약형 신청자의견 제시형

중국의 자막의 유형 및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美(2016), 王聰聰 (2015), 孫偉聰 楊璐(2014), 董瑞雪 (2015), 李淑萍, 勒英龍 (2007), 計服貫 (2013), 張靖 (2014) , 騰飛, 陸丹 (2015) 등이 있다.
李美慧 (2016) 은 자막의 표현 형식에 따라 분류했다.

<표 4> 자막의 유형 및 기능

	자막의 표현 형식에 따른 자막	기능
李美慧 (2016)	문자표시형 자막 그래픽 자막 동영상 댓글 자막	설명성 기능, 해석성 기능 강조성 기능, 인도성 기능 홍보성 기능, 교육성 기능 미화성 기능, 오락성 기능

王聰聰 (2015) 은 발화내용에 따라 자막을 분류했다.

<표 5> 자막의 유형 및 기능

	발화내용에 따른 자막	기능
王聰聰 (2015)	암시적 단어 자막 '문장부호' '표정부호' '어구표시'	정보 전달하고 보충 설명하는 기능, 一詞多意 주제를 풍부하게 하는 기능, 음성과 영상의 부족을 보충하는 기능, 유머 효과를 만들어 현장 분위기를 돋보이는 기능, 시각 효과를 증가하는 기능

計服貫 (2013) 은 기능, 표현형식, 기술 수단에 따라 자막을 분류한다.

<표 6> 자막의 유형 및 기능

	기능에 따른 자막	표현 형식 자막	기술 수단에 따른 자막	기능
計服貫 (2013)	내용 자막 제시형 자막 '복창형 자막' 표제 자막	내용 요약식 프로그램 도입식 문자 모방식 표제어 전환식	혼합 자막 겹친 자막 크로마키 자막 운동 자막	설명하고 정보의 양을 증가하는기능, 인도하거나 유머영역의 강화 기능, 중복하거나 강조하며, 시각적 오차를 줄이는기능, 보충 설명하는 기능, 연상하고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선연하는 기능

張靖 (2014) 은 연관성에 따라, 내용에 따라, 자막과 음성, 화면의 조합에 따라 분류한다.

<표 7> 자막의 유형

	연관성에 따른 자막	내용에 따른 자막	음성, 화면의 조합에 따른 자막
張靖 (2014)	직접적인 연관 자막 비연관적인 자막	지적 자막 주석 자막	독립 자막

騰飛, 陸丹 (2015)는 자막의 기능면에 따라 분류한다.

<표 8> 자막의 유형

	기능면에 따른 자막
騰飛, 陸丹 (2015)	설명성 자막, 강조성 자막, 수식성 자막, 해석성 자막

婁婉子 (2015), 孫維聰, 楊璐 (2014) 은 모두 자막의 기능에 대해 연구했다.

<표 9> 자막의 기능

종류	婁婉子 (2015)	孫維聰, 楊璐 (2014)
기능	유효한 메시지 전달하고 화면 보충 설명 기능 연관된 내용을 확장하고 중점 내용 강조하는 기능 감정 효과 증가 기능 심미적 오락성 향상 기능	자막의 표정 기능 자막의 보충 설명 기능 자막의 디자인, 미화 기능

이와 같이 자막에 대한 유형 기능 및 오류 연구들이 많았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중 자막에 관한 비교 연구는 없다. 또한 한·중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보면, 자막의 유형을 분류할 때 의도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도성에 따라 자막을 크게 ‘제작진 의도[+]’와 ‘제작진 의도[-]’로 대분류 하고, 다음 ‘제작진 의도[+]’을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 하여 제공하는 자막을 ‘직접’ 이라 하고, 제작진이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의도성이 있는 자막을 ‘간접’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작진 의도[-]’는 출연자의 발화를 그대로 옮겨 제공하는 자막을 ‘발화’라 하고, 출연자의 발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객관적인 상황 설명하는 자막을 ‘인용’이라고 한다. 하여 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내용을 위의 유형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텔레비전 문자 언어는 화면 내 문자와 스크린 문자로 나눈다. 화면내의 문자는 촬영된 화면의 문자 내용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표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회의 이름, 조직 명칭, 프로그램 명칭 등이다. 스크린 문자는 주요하게 후기 합성된 것을 말하는데 즉 우리가 말하는 텔레비전 자막²⁾이 여기에 속한다. 홍준식(2004)에서 21세기의 인류가 향유하는 미디어폴리스시대에 기호학은 미디어, 영상, 텍스트, 지도 만화, 사진, 광고, 등 포스트모던 사회를 각인하는 다양한 코드들을 진단하여 나아가 메타 패러다임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고 했다. 텔레비전은 영상과 소리를 통해 내용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자막은 보조적 역할을 하여 수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빨리 이해하도록 돕는다. 최초의 자막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제목이나 인명, 지명 또는 외국어 내용을 전달하는 데만 그쳤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막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방송문화사전에는 자막을 영사막에 영화제목, 제작진, 출연진 등 각종의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 하고, 매스컴대사전에서는 ‘영상자막이나 텔레비전 화면에 영화제목, 제작진, 출연진 등 각종의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 한다. 아래 한국 학자들의 자막에 대한 정의를 보면,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막이란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서 비추는 글자, 표제 내 배역, 등장인물의 대화, 설명 따위를 보여 준다.

<표 10> 한국학자들의 자막에 대한 정의³⁾

박은희·이수영(2001)	영상 속 자막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존 텔레비전 사용했던 글자 중심의 자막 벗어나 그래픽, 도표, 각종 부호, 그림, 캐릭터 등 화면에서 기본영상 위에 등장하는 모든 가시적인 기호로 확정되고 있다고 보여 글자 자막을 포함한 모든 가시적인 기호를 ‘영상자막’ 용어를 사용했다.
김교진(2000)	자막의 기본임무가 기본적인 정보전달 외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자막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방송 보조자막’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주형일(2000),홍경수(2000),김태현(2001)	‘텔레비전 자막’ 또는 ‘자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수영(1999)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서술 행위 자체에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희극적 효과를 노를 자막이라고 정의하고 ‘코믹한 자막’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학자들의 자막에 대한 정의를 보면,

<표 11> 중국학자들의 자막에 대한 정의⁴⁾

趙玉明,王福頤 (1999)	자막을 ‘스크린 문자’로 정의 하여 텔레비전 화면위에 합성화면의 문자이고 화면의 정보량을 증가하고 화면에 대해 설명, 보완, 확장, 강조 등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인물의 신분이
----------------	--

3) 홍준식(2004),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자막 사용에 관한 연구」, 재인용

4) 徐璐 (2013, 「电视字幕问题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硕士, 재인용.

	나 이름, 시간, 장소를 설명한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중에서 뉴스의 주제를 개괄하거나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뉴스의 요점이나 뉴스의 관건적인 언론, 구체적인 숫자 등을 강조하고 배경에 대해 보완 역할을 한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스크린 문자’는 새로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고 방송될 프로그램사건의 이름 방송시간을 예보하며 간결한 언어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간결하고 눈에 띄도록 하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고 했다.
陳建新 (2004)	자막을 거시적으로 볼 때, ‘순수한 문자 자막’과 ‘그래픽 자막’을 포함한다고 정의를 했다. ‘그래픽 자막’은 화면에 나오는 기하학적 도안과 컴퓨터 그래픽 등을 돋보게 한다. ‘문자 자막’에는 주요하게 타이틀 자막, 본문에 나오는 ‘표제어 자막’, ‘음성 내용의 자막’, ‘인물, 시간, 지점 등 주해’ 및 ‘표제디자인 중영 인원 표 자막 등이 있다.
許之民 (2007)	텔레비전 자막은 텔레비전 화면위의 모든 문자의 총칭이다. 이는 ‘문자 자막’과 ‘그래픽 자막’으로 나뉘고 한 면으로는 화면의 주제를 설명하거나 돋보이게 하여 음성 내용을 전달하는 일종 매체 기호이다. 다른 면에서는 텔레비전 화면의 시각적 표현의 중요한 요소 이다. 글꼴, 글자 크기, 구조, 구도, 색채 등 텔레비전 창조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 이다.

표<10>과 <11>에서 보듯이 박은희·이수영(2001)은 영상위에 등장하는 글자자막을 포함한 모든 가시적인 기호를 자막이라고 하고, 趙玉明,王福頤 (1999)는 화면위의 합성화면 문자를 정의 하였고, 許之民 (2007)는 텔레비

전 화면위의 모든 문자를 총칭해서 자막이라고 정의 내렸다. 즉 자막은 텔레비전 화면위에 등장하는 모든 가시적인 기호 및 문자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자막은 문자로서의 자막 사용 외에 그림, 그래픽, 도표, 캐릭터 각종 기호 등으로 활용 되어 빈번하게 등장되고 있다. 특히, 자막은 흥미 유발을 위주로 하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막은 양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교진(2000)은 자막은 방송에서 텔레비전의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일본 텔레비전의 모방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재미와 시각적 주목에 의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시청률 경쟁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측된다.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막을 사용하는 방송은 일본의 민영 방송이다. 90년대 초부터 유행하면서 자막은 오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다. 일본의 민영방송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은 일반적인 영상에 긴장감이 넘치는 극적인 배경음악을 사용해서 흥분된 내레이션을 집어넣고 전자게임과 같은 화면 조각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⁵⁾ 홍경수(2000), 김교진(2000), 주미령(1999)에서 국내 텔레비전에서 보조 자막으로 처음 사용한 프로그램은 1995년 MBC-TV의 <TV파크>라는 견해도 있고, <일요일 일요일 밤에>, 혹은 1996년 SBS <이홍렬 쇼>에서부터라는 엇갈리는 주장도 있지만 프로그램 하단 부분에 자막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각 방송사의 쇼, 오락 프로그램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 되었다. 프로그램이란 방송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로서 그 내용을 기호화해서 수록한 하나의 작품이다. 프로그램은 편성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적 산물로서 제작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되지만 넓은 뜻의 편성이 제작을 포함하듯 넓은 뜻의 프로그램은 편성의 의미를

5) 송일준, 「일본의 텔레비: 체험적 일본 TV방송론」 1998, pp.205~252, 인용.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과 문맥에 맞게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생긴다.⁶⁾ 프로그램의 유형은 분류하기 어렵다. 홍준식(2004)은 통상적으로 오락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 드라마, 음악, 퀴즈, 게임, 쇼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텔레비전 오락은 텔레비전 내용을 구성하는 중심적 요인이며 시청자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유도하는 가장 주된 동기이다. 또한 텔레비전 오락은 텔레비전의 정보적 요소나 교육적 요소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기본토대로 작용한다. 다른 매체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수용자의 주의력 집중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과는 달리 텔레비전은 영상과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텔레비전에서 문자가 사용된다 해도 그것은 제목이나 인명, 지명 또는 외국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쳐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은 오락을 위주로 하는 자막의 노출 빈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점점 많은 텔레비전 방송에 등장한 자막은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 외에 그래픽이나 도표, 그림, 캐릭터, 각종 부호 등 단순한 보조 정보 제공의 수단이 아닌 다양한 시각 기호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신형의 자막 형식을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한국 예능프로그램은 새로운 자막 형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결합하여 좋은 오락 효과를 얻었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이 중국에 진입되면서 중국 본토의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이 점점 오락성을 띠기 시작한다. 중국의 자막 발전은 지금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가져 왔다. 자막은 중국 텔레비전 사업의 발전에 따라 발전되고 있다. 최초 단일하고 완만한 발전 시기를 겪은 후 개혁개방이후의 신속

6) 손용, 손용, 「현대 방송이론」(서울: 나남, 1989), pp.113~124, 인용.

한 발전시기 거치고 지금에 와서는 자막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자막의 발전은 텔레비전 산업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 발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중국의 텔레비전 자막의 발전을 보면 아래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1958년부터 1983년까지는 사람이 쓰고 손으로 텔레비전 자막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초기의 텔레비전 자막은 기능면에서 비교적 단일하고 단순히 메시지 전달과 제시 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목이나 뉴스 프로그램 중에서의 뉴스 표제어로 사용된다. 또한 프로그램 중의 일관 되는 자막 혹은 일부 프로그램 중의 출연자의 인원 표에도 사용된다.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은 화면 중심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자막에서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둘째, 1983년부터 1995년까지는 자막기의 도입으로 하여 텔레비전 자막의 급속히 발전되는 단계이다. 80년대 이후부터 대량의 선진적인 기술을 텔레비전 설비의 생산에 적용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공예에 신속히 발전을 가져왔다. 1984년 중앙텔레비전방송국과 항주 자동차 연구소와 합작하여 가사 (설창 문예·중국 전통극 등의)자막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첫 번째 한자 자막기를 개발하여 손으로 자막을 제작하는 역사가 지나갔다. 마이크로컴퓨터 한자 처리 기술의 발전되면서 컴퓨터를 기초로 하는 자막기가 나타났다. 1989년 이후, 그래픽처리기술 도입의 발전에 의해 전문적인 그래픽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마이크로컴퓨터의 보편화 되면서 자막기의 발전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1990년 이후, 그래픽 제작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의 발전은 본래의 자막기의 함의는 부차적인 지위에 놓였다. 이는 그래픽의 창작과 전자 회화 기능 면에서 발전 되어 전자 애니 제작 기술의 발전 단계가 시작되었다. 셋째, 1995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하에서 텔레비전 자막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다. 1995년, 중앙 방송국은 프로그램의 기술 제작 시스템에 부분적인 디지털 텔레비전 설비를 도입하여 텔레비전이 모방으로

부터 디지털로 과도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을 실현했다. 1996년 초, 멀티미디어 기술의 신속히 발전 되어 멀티미디어 텔레비전 후기 제작 비선형 편집 설비를 개발했다. 2001년 뉴스 제작과 방송의 디지털, 무테이프화와 무지화를 실현했다. 2004년 중앙 방송국에서 온라인 포장 제작 수단을 도입하여 이 시스템은 각 전문 채널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방송의 주요 시스템으로 한다. 동시에 최대한 각 채널의 본래의 미공제작과 방송설비를 시스템에 넣어 통일한 포장 시스템을 형성했다. 중국은 유럽과 일본 등 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 60년대부터 홍콩과 대만 등 지역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시작 했으며 관중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신홍의 예능 프로그램의 형태와 품격으로 인해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중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한 내용으로 변했고 개성이 있는 자막어의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었다. 반면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에는 자막어의 규범화 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자막에는 부적절한 단어, 틀린 단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어휘 남용 등 현상이 많다. 이는 사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 교육부 국가 언어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3일 “국가 언어 문자 사업 ‘십삼오’ 발전계획”에서 언어 문자 검찰 감독 영역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뉴스 출판, 영화와 텔레비전, 새로운 매체, 공공 서비스 영역,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검측하며 또한 문명적인 언어 사용을 제창하여 비속어 언어를 제지하므로 문명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최근에 와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자막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다. 아래 한중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한·중 자막의 유형 분류

언어 내적	표현형식	변영수(2008)	발화제시형 의도적 제시형 '혼합형' '제작진의 의도적 제시형' 상황 설명을 위한 객관적 서술
		李美慧 (2016)	문자표시형 자막 그래픽 자막 동영상 댓글 자막
		計服貫 (2013)	내용 요점식 자막 프로그램 도입식 자막 문자 모방식 자막 표제어 전환식 자막
	내용	윤진서(2015)	대화 부연설명 의미부여 정보제공
		張靖 (2014)	지적 자막 주식 자막
	기능	計服貫 (2013)	내용 자막 '제시형 자막' '복창형 자막' 표제 자막
		騰飛, 陸丹 (2015)	설명성 자막 강조성 자막 수식성 자막 해석성 자막
	형태	김현영(2016)	기본적 정보 전달형 제작진 의견 제시형 출연자 발화 인용·요약형 시청자 의견 제시형
언어 외적	발화내용 과 상황	강연임 (2007)	언어정보처리형 자막 '발화텍스트 원본 제시형'

			‘발화텍스트 요약 제시형’ 상황정보처리형 자막 ‘발화상황 묘사형’ ‘발화내용 평가형’
		王聰聰 (2015)	암시적 단어 자막 ‘문장부호’ ‘표정부호’ ‘어구표시’

본고에서는 표<12>와 같이 한·중 자막의 유형을 정리해 보면, 먼저 자막을 크게 언어내적과 언어외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언어내적인 면에서 표현형식, 내용, 기능, 형태로 하위분류하고, 언어외적으로는 발화내용과 상황으로 하위분류 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은 대부분 출연자나 연출자의 발화를 그대로 옮기거나 요약한 자막과 제작진의 의도적인 개입에 의한 자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고, 중국은 거의 제작진의 의도적 개입에 의해 자막의 유형을 분석했다. 강영임(2007)은 출연자가 방송에서 발화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자막을 ‘발화텍스트 원본 제시형’이라 하고, 요약한 자막은 ‘발화텍스트 요약 제시형’이라고 했다. 윤진서(2015)는 출연자와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제시하는 것을 ‘대화’라 했으며, 김현영(2016)은 ‘출연자 발화 인용·요약형’이라고 했다. 張靖 (2014)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자막을 ‘지적 자막’으로 計服貫 (2013)은 인물의 음성을 ‘복창형 자막’이라 했다. 변영수(2008)은 제작진 의도적 제시를 ‘혼합형’이라 하고, 강영임(2007)은 ‘발화내용 평가형’이라 하며, 김현영(2016)은 ‘제작진 의견 제시형’이라 했다. 李美慧 (2016)은 ‘문자 표시형 자막’이라 하고, 騰飛, 陸丹 (2015)는 ‘강조성 자막.’ ‘수식성 자막.’ ‘해석성 자막’이라고 한다. 또한 자막은 제작진의 의도적인 의미 없이 기본

적인 정보 제공 하는 자막이 있다. 변영수(2008)는 ‘상황을 위한 객관적 서술’이라 하고 , 計服貫 (2013) 는 ‘제시형 자막’ 이라 하며 張靖 (2014)은 ‘주석 자막’, 김현영(2016)은 ‘기본적 정보 전달형’ ,騰飛, 陸丹 (2015) 은 ‘설명성 자막’, 윤진서(2015)는 ‘정보 제공’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영 (2016)은 새로운 형태의 자막인 출연자와 인터넷 시청자들이 소통하여 시청자들의 의견을 직접 자막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청자 의견 제시형’이라 했다. 計服貫 (2013) 영상내 남기는 방식인데 일련의 질타하거나 평론들이 무질서하게 영상표면에 나타나는 자막을 ‘동영상 댓글 자막’이라고 했다. 따라서 양국은 모두 제작진의 의도성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하여 본고는 제작진의 의도성 유무에 따라 자막의 유형을 재분류 한다.



III. 한중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분석

1. 한중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현황

아래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 일주간의 한국과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각각 2편씩 총 4편을 조사 대상으로 분석했다.

<표 13> 한중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 조사 대상

방송사	프로그램	등급	방송 시간	출연자
MBC	무한도전	12세 이상 시청가	2017.07.01. (토) 18:25~19:55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양세형
SBS	런닝맨	12세 이상 시청가	2017.07.02(일)	유재석, 지석진,김종국, 하하, 송지효, 이광수, 전소민, 양세찬
절강위성 浙江衛視	달려라 奔跑吧	12세 이상	2017.06.30 (금) 21:10~22:50	덩차오鄧超, 안젤라베이비 楊穎, 디리러바迪麗 熱巴,리천李晨 , 진혁陳赫, 정카이鄭凱, 왕쭈란王祖藍 , 루한鹿晗

동광위성 東方衛視	극한도전3 极限挑戰3	12세 이상	2017.07.09 (일) 22:00~23:30	황보黃渤, 손 홍레이孫紅雷 , 황레이黃磊 , 나지상羅志 祥, 왕신王迅 , 장예홍張藝 興
--------------	----------------	--------	-------------------------------	--

1.1 한중 자막 사용 빈도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보다 오락적 요소를 제공하므로 자막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장르이다. 이번 연구는 우선 조사 대상 한중 예능 프로그램의 편당 자막 노출 건수를 살펴보았다. <표15>결과를 보듯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인 MBC에서 방송된 '무한도전', SBS에서 방영된 '런닝맨'은 한 편에서 1,000건이 넘는 자막이 노출되고 있었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인 절강위성에서 방송된 '달려라'에서는 1,000건이 넘는 자막이 노출되었고, 동광 위성에서 방송된 '극한도전3'에서는 812건으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노출 수 1,000건을 넘지 않았다.

한·중 예능 프로그램에서 분당 자막 건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은 분당 18.1개, SBS '런닝맨'은 분당 15.6개로 나타났다. 즉 2편의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조사 결과 대략 3~4초에 한 번씩 자막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인 절강위성 '달려라'는 분당 9.9개, 동광 위성 '극한도전3'은 분당 8.8개로 나타났다. 즉 2편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의 조사 결과 대략 6~7초에 한 번씩 자막이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노출 건수는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자막 노출 건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막은 한중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자막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자막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한중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 노출 건수

방송사	프로그램명	자막 노출 건수/방송시간	분당 자막 건수	자막 전환 시간
MBC	무한도전	1448/80	18.1개	3.3초
SBS	런닝맨	1478/95	15.6개	3.8초
절강위성 浙江衛視	달려라 奔跑吧	1095/110	9.9개	6.0초
동방위성 東方衛視	극한도전3 极限挑戰3	812/92	8.8개	6.8초

1.2 한·중 자막의 유형 분석

한편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의 본래의 기능 즉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 재미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의 자막이 문자 중심이면 현재는 여러 가지 부호, 캐릭터, 다양한 글씨체, 색상, 모양 등을 사용하여 개성을 추구하여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웃음을 준다. 예능프로그램에서 발화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 심리 활동, 상황에 없는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막의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발화자의 함축된 내용이나 심리 활동을 자막으로 표현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추가 제공하므로 시청자들이 이야기 흐름을 쉽게 이해하여 적극적인 자막의 사용 하는 것이다. 유진서(2015)에서는 적극적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 자막의 유형은 의미 부여와 정보 제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래 제시되는 내용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므

로 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는 자막의 순기능이라고 한다. 자막은 이런 순기능 역할을 하지만 역기능도 있다. 자막이 사용된 최초의 이유는 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자막은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막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표14>를 보듯이 ‘자막 공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자막이 사용되고 있다. 비하·차별적인 표현, 비속어, 과도한 외래어 사용, 언어예절에 벗어나는 표현 등 부정적인 자막이 많이 사용된다.

<표 15> 한·중 자막 유형별 조사 건수

조사 항목	제작진 의도[+]			제작진 의도[-]		
	직접	간접	합계	발화	인용	합계
런닝맨	1382	224	1606	84	33	117
무한도전	1017	151	1168	295	50	348
달려라	693	161	854	34	49	83
극한도전3	372	227	599	25	92	117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런닝맨’에서 제작진 의도[-]의 자막 수는 84건,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1606건이고, ‘무한도전’에서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348건,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1168건이다. 중국 ‘달려라’에서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83건,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854건이고, ‘극한도전3’에서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107건, 제작진의 의도[+]의 자막 건수는 599건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의 제작진의 의도[-]의 자막 건수는 모두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 보다 적다. 즉 양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의 의도

적인 개입이 모두 많으며 자막의 흥미 유발하여 시청자들을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보인다. 제작진의 의도[+]의 경우, 한국의 ‘런닝맨’에서 ‘직접’의 자막건수는 1382건, ‘간접’의 자막 건수는 224건이고, ‘무한도전’에서 ‘직접’의 자막 건수는 1017건, ‘간접’의 자막 건수는 151건이다. 중국의 ‘달려라’에서 ‘직접’의 자막 건수는 693건, ‘간접’의 자막 건수는 161건이고, ‘극한도전3’에서 ‘직접’의 자막 건수는 372건, ‘간접’의 자막 건수는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은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제작한 자막이 모두 간접적으로 개입한 자막보다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중국의 ‘극한도전3’에서는 제작진의 직접적으로 개입한 자막 건수와 간접적으로 개입한 자막 건수가 비슷한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진 의도[-]의 경우, 한국의 자막 건수는 총 465건이고, 중국의 자막 건수는 총 200건으로써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제작한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제작한 제작진의 의도[-]의 자막 건수 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말화’ 자막 부분에서 한국의 자막 건수는 총 379건이고, 중국의 자막 건수는 총 59건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한·중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을 제작진 의도[-], 제작진 의도[+]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자.

가. 제작진 의도[-]

1) 말화

말화란 출연자가 예능프로그램에서 말화한 내용을 제작진이 말화 내용 그대로 자막을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출연자는 말화할 때 대본에 따라 이야기 구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화할 때 주제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출연자가 방언

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 자막으로 표현하여 이야기 정확한 전달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이러한 발언을 그대로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아래 예들은 모두 제작진의 개입이 없이 출연자들의 발화를 그대로 자막으로 만든 예제들이다.

(1) 가. 나는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어요

세형아 정민이 형 처음 보나?

-(무한도전-MBC)

키는 진짜 비슷한데 얼굴 너무 다르다

-(런닝맨-SBS)

咱倆偷偷配合唄

우리 둘이 몰래 협력하자.

從小就不嫌脏

어릴 때부터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극한도전3-동광위성)

發生了什麼！

뭐가 발생했어요?

-(달려라-절강위성)

謝謝農

감사합니다.

-(극한도전3-동광위성)

나. 보행금지

정지

-(런닝맨-SBS)

粉鳳凰

분홍색 봉황

石獅子

돌사자

-(달려라-절강위성)

다. 對了

맞다.

莫秀秀

모수수.

我買了奶

저 우유를 샀어요.

-(극한도전3-둥광위성)

(1가)에서 경우는 모두 제작진의 개입이 없이 양국의 멤버들이 서로 발화한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한 예들이다. 한국은 대부분 멤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직접 자막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면 중국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극한도전3'에서 자막 '謝謝儂'은 출연자가 상해방언을 사용했는데 제작진이 그대로 자막으로 제작한 경우가 한 건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도 멤버가 부산 방언을 사용하여 자막을 만든 경우가 한 건이 나타났다.

(1나)의 경우는 모두 출연자가 예능프로그램에서 게임 할 때 발화한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한 예들이다. '런닝맨'의 자막 '보행금지', '자막'은 '동서문답' 게임할 때의 출연자의 발화 자막이고, '粉鳳凰'와 '石獅子'는 '발음' 게임 할 때의 출연자의 발화 자막이다. 이는 한국의 '런닝맨'과 중국의 '달려라'에서 나타나고 '무한도전'과 '극한도전3'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다)의 경우는 멤버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자들이 서로 대화할 때 출연자의 발화 자막들이다.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극한도전3'에서의 자막 '莫秀秀'는 출연자가 이름은 물어 볼 때 발화 내용이고, '我買了奶'는 출연

자가 상해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자막이다. 이는 시청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이야기의 흐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경우는 양국은 모두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극한도전3'에서 비교적 많이 나왔다.

(2) 가. 오우 이거 뭐야?!

아유 고맙습니다~

-(런닝맨-SBS)

어후~ 매실~

-(무한도전-MBC)

하 하 하

하 하 하

-(달려라-절강위성)

나. 맞다 맞아

-(런닝맨-SBS)

나이스! 나이스!

-(런닝맨-SBS)

不對不對

아니야 아니야

-(극한도전3-둥팡위성)

다. 미안해×2

-(런닝맨-SBS)

안돼×3

-(무한도전-MBC)

(2)의 경우를 보면 양국은 의성어를 모두 많이 사용했는데 제작진은 출연자의 이런 발화를 그대로 자막으로 제작한 예들이다. 아래 양국의 '발화' 부분에서의 의성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한·중 의성어 ‘발화’ 자막

한국	중국
앗, 오우, 따따 따따따, 아유, 이야~, 헛헛, 이잉...헛, 야..., 어우~, 아야... 아 야..., 아..., 어우~, 에에에에에에에에, ㅠㅠ, 으아아!!, 아휴, 어후~, 헉, 오, 어휴..., 아, 웅~, 와, 아 아하하!!, 어어 어어이, 어라이, 어어, 아어으, 휴우... 아흑, 후우, 우와아, 우우우~, 으하하하 핫, 후~, 와~, 하하하하하, 아으~, 흐하 하하, 허허허허, 헤이~, 에이, 아악!, 어으!, 아으!!	哈哈哈哈哈(하하하하하하), Bang, 略 略 略, 哇! 哇! 哇! (와!와!와!), 哎 呀(아이구), 啊(아), 哈 哈 哈(하 하 하), 天霸 動霸 TUA, wow(와우)

<표16>을 보면, 양국은 ‘발화’부분에서 의성어 자막이 모두 나타났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2나)와(2다)의 경우는 출연자가 한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자막들이다. 이 경우는 양국이 모두 나타나긴 했지만 중국의 두 편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두 건만 나왔다. 또한 (2다)에서는 출연자의 반복된 발화를 회수에 따라, ‘미안해×2’, ‘안돼×3’ 이렇게 숫자를 덧붙이는 자막이 나타났지만 중국의 두 편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가. 분위기 좋다 오늘

넌 볼 면목이 없어 내가...

- (런닝맨-SBS)

출세했다<무한도전>까지 나오고!

진작에 배웠으면...

- (무한도전-MBC)

(3가)의 경우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출연자의 발화한 자막 ‘분위기 좋다 오늘’, ‘널 볼 면목이 없어 내가...’, ‘출세했다<무한도전>까지 나오고!’을 보면 모두 ‘서술어+주어’의 형태의 자막이 나타났다. 그리고 ‘무한도전’에서 ‘진작에 배웠으면...’ 자막처럼 출연자의 발화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문장들을 자막으로 제작한 현상이 많았다.

2) 인용

인용이란 출연자가 발화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자막을 말한다. 발화내용의 중요한 핵심부분을 자막으로 노출한다. 자연스러운 대화여서 발화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이러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핵심적인 부분만 자막으로 제시한다.

(4) 가. 원본: 혹시나 광수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막: 그렇다면 아직도 광수에 대한 마음은 여전한지?

-(런닝맨-SBS)

원본: 你是得票最多的一个

너는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

자막: 你是得票數最高的

너는 얻은 표수가 가장 높다.

-(달려라-질강위성)

원본: 完成任務 就可以挽回自己的命運

임무를 완성하면 자신의 운명을 되찾을 수 있다.

자막: 完成任務 就能改變命運

임무를 완성하면 운명을 개변할 수 있다.

-(극한도전3-동광위성)

(4가)경우의 예제들은 양국의 출연자의 발화의 내용을 요약해서 원래의 발화보다 짧은 자막으로 제작한 예제들이다. 위의 예들을 보면 모두 단어를 바꾸고 전반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이 요약한 자막들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원본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를 자막 '마음은 아직도 여전한지?'이렇게 '유지가 되다'를 '여전하다'로 바꾸어 전반내용이 뜻은 변하지 않고, 핵심부분을 요약한 자막이다. 중국의 '극한도전3'에서 원본 '得票最多的一个'와 '挽回自己的命運'를 각각 자막 '得票數最高的'와 '改變命運'로 제작하여 자막을 만들었다. 이는 단어 '最多'를 '最高'로 바꾸고, '挽回'를 '改變'로 바꾸어 전반적인 뜻은 변하지 않고 요약한 자막이다.

(5) 나. 원본: 와 이걸 지금 진지해, 진지해

자막: 와, 이걸 지금 진지해

- (런닝맨-SBS)

원본: 現在前往上南路1500

지금 상남로1500로 가세요.

자막: 現在請前往山南路

지금 상남로로 가세요.

-(극한도전3-동광위성)

원본: 牛奶隨便放

우유를 아무 곳에나 놓으세요.

자막: 奶隨便放

우유를 아무 곳에나 놓으세요.

-(극한도전3-등광위성)

원본: 不要啊

자막: NO

-(극한도전3-등광위성)

(5나)의 경우는 출연자의 발화를 줄여서 자막으로 인용한 자막들이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는 '진진해, 진진해'를 '진진해'로 줄이고,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극한도전3'에서는 '上南路1500'을 '山南路'로, '牛奶'를 '奶'로 줄여서 자막으로 제작했다. 그중 영어를 대신하여 자막을 만드는 경우가 한 건이 나타났다.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극한도전3'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게임 규칙이나 프로그램의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달려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다. 원본: 나는 오늘... 내 의상이 마음에 든다?

예..

자막: 패션에 만족? 광수의 대답은 “예”였고 진실로 판명!

-(런닝맨-SBS)

원본: 有山有水 有美人 有美景

산이 있다 물이 있다 미인이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자막: 山水相依 美人相伴

산과 물이 서로 통하고, 미인과 동반한다.

- (달려라-절강위성)

원본: 我工地上那个 五十根油條 我來拿了

나는 공사현장에서 온 그 공사장이다. 50개의 유
타오를 가져가러 왔다.

자막: 工地長來取 50份早餐

사장은 50분의 아침을 가지러 왔다.

-(극한도전3-둥팡위성)

(5다)의 경우는 출연자의 짧은 문장들을 정리하고 개괄하여 발화내용의 중심내용을 자막으로 인용하는 경우이다. 예문을 보면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이광수에게 '나는 오늘... 내 의상이 마음에 든다?' 고 물어보니 이광수가 '예..' 하고 대답하는 두 명의 출연자들의 발화한 문답 형식을 제작진은 '패션에 만족? 광수의 대답은 "예"였고 진실로 판명!' 로 개괄하여 하나의 자막에 발화자의 내용들이 모두 표현되어 발화자의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중점도 명확하여 시청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전달이 된다. 이는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중국 예능프로그램 '달려라'에서는 출연자의 '有山有水 有美人 有美景' 이런 개개의 짧은 문장들의 내용을 개괄하여 하나의 짧은 자막으로 만들었다. '극한도전3'에서는 출연자의 발화내용 '我工地上那个 五十根油條 我來拿了'를 다시 정리하여 요점만 자막으로 인용했다. 이는 출연자의 발화 내용이 길고 또한 체계적이지 않아 시청자들이 상황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6) 가. 원본: 많이 들었고 연관 검색어에 항상...

자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연관 검색어에 항상...

-(런닝맨-SBS)

원본: 誰啊

누구지?

자막: 第一位 畫中人 會是誰呢?

첫 번째 그림속의 사람은 누구일가?

(달려라-절강위성)

원본: 沒您的名字

당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막: 確認 送奶單上沒有阿姨名字

우유 배달 전단지에 이모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 했다.

-(극한도전3-동광위성)

나. 원본: 88樓 340米

88층 340미터

자막: 88樓 340米的高度

88층 340미터 높이

-(극한도전3-동광위성)

(6가)의 경우는 출연자의 발화 내용보다 더 길게 제작한 자막들의 예들이다. 제작진은 발화 내용의 앞부분이나 뒤 부분에 개관적인 사실을 추가하여 시청자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원본 ‘많이 들었고 연관 검색어에 항상...’을 자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연관 검색어에 항상...’로 만들어 내용의 앞 부분에 보충 설명을 했다. 중국의 예능프로

그럼 ‘달려라’에서 원본 ‘誰啊’를 ‘第一位 畫中人 會是誰呢?’로 자막을 만들어 앞부분에 내용 보충 설명을 했다. 또한 (2나)에서 원본 ‘88樓 340米’를 자막 ‘88樓 340米的高度’로 만들어 원본의 뒤부분에 추가 정보를 만드는 자막도 있다.

나. 제작진 의도[+]

1) 간접

제작진이 출연자의 발화내용 그대로 자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공하여 재미를 유발하여 제작한 자막을 말한다. 또한 제작진이 자막의 형태로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시청자들에게 현장감을 주게도 한다. 아래 예들은 모두 출연자가 발화한 내용을 제작진의 의도적으로 제작한 자막이다.

(7) 가. 원본: 출세했다 <무한도전>까지 나오고!

자막: 첫 예능 출연이 감개무량한 연기신

원본: 입학식인줄 알았어요

자막: 차려입고 입학식에 온 부자지간

-(무한도전-MBC)

원본: 摔到那个上面了嗎?

어디 다쳤어요?

자막: 關心

관심하다.

원본: 我抱不住

나 안을 수가 없어.

자막: 腰圍 超過了臂長

허리둘레가 팔의 길이를 초과했다.

-(달려라-절강위성)

(7가)의 경우는 모두 양국의 출연자의 발화내용에 대해 제작진이 평가하여 의도성을 가진 자막들이다. 이 자막들은 출연자의 발화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경우 박도원이 처음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출세했다 <무한도전>까지 나오고!’ 구사하자 ‘첫 예능 출연이 감개무량한 연기신’이라고 제작진은 박도원의 발화에 대해 ‘감개무량한 연기신’이라고 평가하여 자막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 중국 예능프로그램 <달려라>의 경우 장천애가 ‘我抱不住’라고 발화하자 제작진은 ‘腰圍 超過了臂長 (허리둘레가 팔의 길이를 초과했다.)’고 출연자를 발화를 비하하여 자막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 이는 양국의 경우 모두 나타났다.

또한 제작진은 출연자의 발화내용에 어근, 어간, 단어 혹은 구를 넣어 의도성을 가진 자막으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발화자의 표정, 행동을 묘사하고 심지어 발화자의 심리 생각마저 분석하여 발화내용에 추가하여 자막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다.

(7) 나. 쑥스 아 이거요?

창피 어우~ 옛날 사람~

-(런닝맨-SBS)

걱정 진짜 왕 되면 나 바꿔줘야 돼 협박 나 진짜 이러면

우리 금방 죽어 징징 바로 회식 가야 돼요 10분만에~

단 넌 잡혔어 하면 잡힌 거고 순 내가 잡았어 하면 잡은 거

야!

-(무한도전-MBC)

(7나)의 경우는 제작진이 출연자의 발화내용에 단어를 추가하여 자막을 제작한 예제들이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출연자의 발화의 앞에 ‘창피’ 단어를 넣어 제작진은 출연자의 발화할 때의 표정을 표현했다. ‘무한도전’의 경우, 출연자의 발화 앞부분에 ‘걱정, 험박, 징징’ 연속적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막 ‘단 년 잡혔어 하면 잡힌 거고 순 내가 잡았어 하면 잡은 거야!’에서처럼 한 개의 단어를 분리하여 자막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쑥스’는 ‘쑥-스럽다’의 어간이고, ‘험박, 징징’은 ‘험박하다’와 ‘징징하다’의 어근이다. 한국의 ‘직접’ 자막에는 어근 형태의 자막을 넣은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는 중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자막에서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 어근, 어간이나 단어를 넣는 현상이 있고, 일부 경우 자막의 가운데 있거나 한 개의 단어를 분리하여 사용한다.

(7) 다. 왜 힘이 나지? 분명 새벽에 출발해서 피곤했는데...

얼굴에 비하면 옷은 너무 예뻐요

"나은 씨 손 아플 텐데 만지 빼고 하세요~ '편치게임 당시'

- (런닝맨-SBS)

지효네 내가 미안~ 가로챘지롱!!

밑져야 일단은! 본전 내가 하하를 무조건 잡을게

-(무한도전-MBC)

(7다)의 경우는 제작진이 출연자의 발화내용에 구를 넣은 경우이다. 한

국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출연자의 발화의 앞부분에 ‘왜 힘 나지?, 얼굴에 비하면, 펀치게임 당시’를 넣어 출연자의 생각을 넣거나 출연자를 비하하여 시청자들이 재미를 유도하기도 한다. ‘무한도전’에서처럼 ‘지효네 미안, 밀쳐야 본전’이 구들을 자막에 분리하여 넣는 경우도 있다. 자막에서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은 자막의 앞부분에 구를 넣는 현상이 많고 뒤 부분이 구를 분리하여 넣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은 출연자의 발화내용에 어근, 어간, 단어와 구를 넣어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자막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은 대부분 출연자의 발화내용을 가공한 후 자막에 단어나 구를 추가하여 만든 예들이다. 아래 예들을 보면,

(8) 가. 生气 不給我道歉不干活

화내다 저에게 사과 안하면 일을 안 합니다.

驕傲 智商難得上線

거만하다. 아이큐가 어찌다 올라갔다.

-(극한도전3-동광위성)

나. 看着我的眼 感受我的顏

저의 눈을 보면서 얼굴을 느끼다.

睜眼說瞎話 我服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할 말이 없다.

-(극한도전3-동광위성)

(8가~나)는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 단어나 구를 추가하여 제작한 예들이다. (8가)는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극한도전3’에서 자막의 ‘生气, 驕傲’단어를 넣어 출연자의 심정을 묘사했다. 중국의 예능프로그램에는

주어 시청자들이 즐거움을 주거나 이야기 흐름을
다. 아래 예들은 모두 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하여 자막으로 된 예들이다.

가. 하하.준하 손님맛이 놀래주러 이동
역시 어느 캐릭터든 완벽 소화!
예능에서 못 봤던 얼굴에 깜짝
나. 당황
반갑

-(무한도
-(런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

(9가)는 출연자의 행동에 대해 제작진이 평가하여 자막을 만든 예 들이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하하와 준하가 다른 출연자가 처음 등장할 때 제작진이 자막 '하하.준하 손님맞이 놀래주러 이동'라고 출연자의 행동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황정민이 슈퍼마리오를 연기할 때 제작진은 '역시 어느 캐릭터든 완벽 소화!'라고 자막 사용했다. (9나)는 제작진이 출연자의 표정을 묘사하여 만든 자막들이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표정을 '당황, 반갑, 惊嘆'로 묘사하였다. 제작진의 이런 표현은 시청자들이 재미를 이끌게 되고 프로그램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2다)에서처럼 부호로 출연자의 심리를 묘사하여 설명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행동, 표정, 생각, 등을 의도적으로 자막으로 만들어 시청자들의 정보 전달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시청자들의 흥미도 유발시킨다. 따라서 양국은 위의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제작진은 또한 직접 예능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출연자의 발화에 직접 대응하는 발화를 자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들을 보면,

(10) 가. 원본: 저빠고 원래 다섯 분만 나오는 게 맞는데

무한도전과 동일 여섯명 맞추자 해서...

자막: 그건 아니죠

원본: 광희랑 무리면 되겠다

자막: 왜 자꾸

-(무한도전-MBC)

나. 원본: 因爲你的腿短

너의 다리 짧기 때문이다.

자막: 耿直

정식하다.

-(달려라-절강위성)

원본: 很快什么叫左右開弓

자막: 請開始你的表演

표현을 시작하세요.

-(극한도전3-둥팡위성)

(10)의 경우는 모두 양국의 제작진이 직접 참여하여 마치 출연자처럼 출연자와 발화를 진행하는 예들이다. (10 가)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출연자의 발화에 제작진이 직접 개입하여 '그건 아니죠'라고 표현했다. (10 나)는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달려라>의 경우 덩차오가 풍선 터뜨리는 게임에서 졌을 때, 루한이 '因爲你的腿短 (너의 다리 짧기 때문이다.)'라고 발화하자 제작진은 '耿直 (정직하다)'고 자막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양국이 모두 존재한다.

2. 한중 tv 예능프로그램의 자막방법 분석

아래 한국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에서 조사 항목별 지적 자막 건수를 살펴보자.

<표 17> 한국 조사 항목별 지적 자막 건수 (단위: 건)

조사항목		지적 자막 건수		
		제작진 의도[-]	제작진 의도[+]	합계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	비하·차 별적 표현	13	124	137
	비속어	11	16	27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 사용		73	559	632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띄어쓰기 오류	50	150	200
	부정확한 어휘	31	243	274
합계		178	1174	1270

<표17>에서 보듯이 출연자의 발화를 그대로 하는 발화제시 는 총 178 건이고, 제작진의 의도적 제시로 하는 자막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제작진 이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자막 건수는 발화제시의 자막 건수보다 더욱 많이 나타났다.

출연자의 발화가 제작진의 의도적으로 제작한 자막에서 더 많이 나타나 프로그램이 제작진의 의도적인 경향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 위에서 보듯이 외래어·외국어 조사 항목의 자막 건수가 55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 조사 항목에서의 건수가 243건으로 제작진 의도에 따른 자막에서 2위를 차지한다. 다음은 띄어쓰기 오류의 항목 수는 150건, 비하·차별적 표현 조사 항목 수는 124건, 비속어 조사 항목이 16건으로 제일 적게 나타났다. 제작진은 예능프로그램의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과도한 외래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 비하·차별적인 표현, 비속어 사용한다. 따라서 이런 예능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자막은 청소년

시청자들이 올바른 국어를 배우는데 영향을 준다. 외국어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신조어, 준말 등 남용으로 인해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최근 자막의 빈번한 사용은 시청자들이 올바른 국어를 배우는데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 아래 중국 조사 항목별 지적 자막 건수를 보자.

<표 18> 중국 조사 항목별 지적 자막 건수 (단위: 건)

조사항목		지적 자막 건수		
		제작진 의도[-]	제작진 의도[+]	합계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	비하·차별적 표현	1	176	177
	비속어	0	23	23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 사용		10	58	68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띄어쓰기 오류	2	254	256
	부정확한 어휘	0	52	52
		13	563	576

<표18>에서 보듯이 중국의 지적 자막 건수를 보면, 출연자의 발화제시에서 13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자막 건수는 총 563건으로 중국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자막도 발화제시보다 제작진의 의도적으로 자막을 제작한 경우가 더 많이 차지한다. 발화제시 자막이 적어서 제작진의 의도적인 주된 역할을 한다.

위 표를 보면, 제작진의 의도적 제시 중에서 어법에서 맞지 않는 표현 조사 항목 중 띄어쓰기 오류 자막 건수가 25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 조사 항목 중의 비하·차별적인 표현에서의 자막 건수가 176 건으로 2위를 차지한다. 즉 중국의 텔레비전 예능프

로그그램에서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제작진의 의도적인 자막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 사용에서 자막 건수는 68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조사 항목 중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에서 자막 건수 52건,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의 조사항목 중 비속어는 23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즉 양국의 조사 항목별로 지적 자막 건수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작진의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자막이 모두 출연자의 발화를 그대로 하는 발화제시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예능프로그램이 모두 제작진의 의도적인 제시에 의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자막을 대부분 사용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지적 자막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한국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한 사용의 건수가 제일 많고 다음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 오류의 자막건수가 많다. 반면 중국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한 사용의 건수가 제일 적었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 오류의 자막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에서의 비하·차별적 표현이 한국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속어 사용은 양국은 모두 적었다.

2.1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

2.1.1 비하·차별적 표현

한중 예능프로그램 자막을 보면 출연자의 외모, 이름, 행동, 성격 등에

대해 비하·차별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그중 출연자의 이름을 별명을 달아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래 예들은 한중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에 나타나는 비하·차별적 표현들이다.

(11) 가. 건전한 커플은 아닌것 같지 ?

이건 개가 오줌싸는게 아니에요?!

ㅎ ㅎ 주절주절 메이크업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짱손지옥(?) 빨리 여길 벗어나라.. 미안하다...

얼굴 비하면 옷은 너무 예뻐요

각종 해산물(?)과 꽃사슴을 실은 버스는

-(런닝맨-SBS)

나. <무한상사> 연기를 왜 이리 얕으면서한거예요?

형은 맞아도 티가 안 나잖아 빨가니까

예능신 들었다 놔다 하는 연기신

하하 네 연기는 정말 똥이었다...

-(무한도전-MBC)

다. 腰圍超過了臂長

허리 사이즈가 팔의 길이를 초과 했다.

你可 長点心吧

너 좀 신경을 써라.

名不虛傳的氣球 ‘殺手’

명실상부한 풍선 ‘킬러’ .

需要安慕希補補腦了

‘安慕希’로 머리를 보충한다. (‘安慕希’는 요구르트의 명칭)

-(달려라-절강위성)

라. 兩只狐狸時刻提防導演組

두 마리 여우는 수시로 제작진을 경계한다.

還是松鼠好忽悠

다람쥐는 여전히 속이기 쉽다. (다람쥐는 사람의 별명)

耳根終于清淨

귀 주변이 결국 조용해졌다.

-(극한도전-동광위성)

(11)의 경우는 한중 예능프로그램의 문장이나 구에 대한 예들이다. (11가)의 경우 출연자는 동료 출연자 커플의 모습을 '건전한 커플은'은 아니라고 비하해서 표현했다. '건전'은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또한 출연자의 춤추는 행동을 '개가 오줌 싸는게'라고 비하하여 표현했다. (11나)의 경우 제작진이 출연자의 모습을 '얹으면서 한다', 출연자의 얼굴이 빨간 것을 '맞아도 티가 안 나잖아', '하하 네 연기는 정말 똥이었다...' 등 비하하는 표현을 그대로 자막으로 표현했다.

(11다)와 (11라)의 경우는 중국의 프로그램 자막에서 표현되는 비하·차별적인 표현들이다.(11다)에서 출연자의 몸매가 뚱뚱한 것을 '腰圍超過了臂長 (허리 사이즈가 팔의 길이를 초과 했다.)'란 자막으로 비하해서 표현했다. 또한 제작진이 '你可 長點心吧, (너 좀 신경을 써라.)' 자막으로 출연자가 주변의 사람, 신경에 쓰지 않고 단순하게만 생각한다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11라)의 경우 ' 兩只狐狸時刻提防導演組' 자막에서 '狐狸'는 '여우'로써 허위적이고 간사하며 교활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제작진은 두 명의 출연자를 '여우'로 비하해서 표현했다. '耳根終于清淨,(귀 주변이 결국

조용해졌다.)’인 자막에서 제작진은 출연자가 잔소리가 많다고 비하하여 자막을 표현했다.

위의 예들을 보면 한국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은 구나, 단어로 자막을 표현된 현상이 많지만 중국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은 대부분 단어로 비하·차별적인 표현한 자막들이 많다.

특히, 출연자의 이름 별명을 그대로 자막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 한중 자막에서의 이름 별명을 정리하면,

<표 19> 한중 이름 별명 자막

한국	중국
자석인간, 꽃사슴, 광수 썸썸, 꾹, 왕코, 기름 인 간, 머슴, 주먹지효, 집 사,뚜기,대왕멸치,영똥녀, 팡손,금손,팡손짓, 갓팡 손, 이팡수, 십팡수, 왕 코아재, 갑오징어, 오징 어 등	小綿羊(작은 염소), 帥雷雷(멋진뢰뢰), 大松鼠(큰 다 람쥐), 神算子(神연산자), 靑島貴婦(청도 귀부인), 狐 狸(여우), 大頭(큰 머리), 天真羊(단순한 양), 松鼠崽 子(다람쥐 새끼), 老狐狸(늙은 여우), 秋田渤(사바- 박), 牛頭雷(불독-뢰), 雷宝宝(뢰베이비), 小豬(작은 돼지), 菠蘿, 小狐狸(작은 여우), 顏王(얼굴 왕), 鄧老頭 (등 할아버지), 李老頭(이 할아버지), 秋褲女團(가을 팬츠 걸그룹), 赤赤(혁혁), 小赤赤(작은 혁혁) 耿直鹿 (정직한 루) 등

<표19>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제작진이 이팡수를 ‘팡손, 이팡손, 이팡수, 팡손짓등’ 비하하여 표현된 자막들이 많다. ‘팡’은 제비뽑기 따위에서 배당이 없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제작진은 출연자를 ‘팡’ 손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한 전소민이 프로그램에서 자성을 띤 물체가 얼굴에 붙는다고 ‘자석 인간’이라고 이름을 불러 전반 과정에서 이름 대신 ‘자석 인간’으로 불린다. 외모에 대해서 ‘대왕멸치, 갑오징어, 오징어, 머슴, 꽃사슴’등 비하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秋田渤’, ‘牛頭雷’, ‘鄧老頭’, ‘李老頭’, ‘顏

王’ 이 자막은 외모에 따라 출연자를 비하하여 별명을 붙힌 자막들이다. ‘秋田渤’는 출연자가 생김새가 시바견 닮았다고 해서 성 앞에 ‘秋田’이란 단어를 덧붙이어 자막으로 표현하고, ‘牛頭雷’는 출연자가 불독 닮았다고 성 앞에 ‘牛頭’이란 단어를 덧붙여서 자막으로 표현했다. ‘李老頭’는 출연자가 나이가 많다고 비하하여 성에 ‘老頭할아버지’단어를 사용하여 자막을 만들었다. ‘小綿羊(작은 염소)’, ‘小狐狸(작은 여우)’, ‘耿直鹿(정직한 루)’ 보면 모두 성격에 대한 자막 사용들이다.

한·중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름 별명 단어 자막 사용을 살펴보니, 양국은 외모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중국은 성 앞뒤에 비하하는 단어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격에 대한 비하적인 이름 별명 자막들이 대부분이다.

즉 한·중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에는 외모, 이름, 행동에 대한 비하·차별적 자막 표현들이 사용되고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는 성격에 대한 비하·차별적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제작진은 이런 자막들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지만 반면 시청자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 줄 수도 있다.

2.1.2 비속어

비속어란 일반적으로 격이 낮고 속된 말을 가리킨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오락성을 위주로 하여 제작진이 비속어를 발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자막에는 비속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 예들을 살펴보자.

(12) 가. 아우c

안해! 안해! 안해...C

아우C 천 원 들어 있어...!!!

에이씨

한팀에 물빵(?)해야죠^^

비주얼 강패

포스 봐요 솔직히 남자 강패 여자 강패 아니에요?

‘펀치 1등’은 혹시... 여강(?) 홍진영?

-(런닝맨-SBS)

나. 나 꼬마건설이야

까불고 있어

안쫓아

쫓지말라고!

얼굴 강패 있죠?얼굴로 다 때려버리는

-(무한도전-MBC)

(13) 가. S型身段 妖艷的貨色

S형 몸매, 요염한 물품

大腦瓜 玩不來的高科技!

큰머리, 첨단기술 놀 줄 모른다!

太傻啥線索都不知道

바보는 어떤 단서도 모른다.

二傻智商提高了

바보 지능이 올라갔다.

死胖子投我

죽일 똥똥보야 나를 투표해줘.

(12가)의 경우는 <런닝맨>에서 제작진이 출연자의 격한 발화를 그대로 자막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막 ‘아우c’에서 ‘c’ 문자로 표현함으로 원래의 의미를 약화했지만 “에이씨” 원래의 발화대로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막 ‘한팀에물빵(?)해야죠^^’에서는 커피 비용을 모두 한팀에 부담하라는 상황을 표현 하는 것이다. ‘물빵’은 속된 표현으로 흔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붓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막 ‘비주얼 깡패’는 제작자가 출연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깡패’는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써 출연자의 모습을 ‘깡패’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다. (12나)의 경우 ‘꼬마건달이야’에서 ‘건달’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을 말로써 출연자의 모습에 대한 표현한 자막이다. 자막 ‘까불고 있어’에서 ‘까불고’는 건방지거나 주제넘게 굴다는 속된 표현이다. 자막 ‘안쫄아’는 출연자의 발화 내용이다. ‘쫄다’는 ‘위협적이거나 압도하는 대상 앞에서 겁을 먹거나 기를 펴지 못하다’를 뜻하는 ‘줄다’를 강조하기 위해 경음화한 것이다.

(13)인 경우는 중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자막들이다. (13가)의 자막 (S型身段 妖艷的貨色, S형 몸매, 요괴한 물품)에서 ‘貨色’는 물품 혹은 사람이나 사상언론, 작품 등을 가리키는데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大傻啥線索都不知道 (바보는 어떤 단서도 모른다.)’ ‘二傻智商提高了 (바보 지능이 올라갔다.)’이 자막에서 제작진은 ‘大傻’와 ‘二傻’를 사용했는데 ‘傻’는 머리가 흐리멍덩하고 사리에 불명하다는 뜻으로 제작진은 출연자의 지능의 순서 에 따라 ‘傻’의 앞에 ‘大’와 ‘二’덧붙이어서 속된 자막을 만들었다. ‘死胖子投我 (죽일 똥똥보야 나를 투표해줘.)’ 제작진은 출연자를

부를 때 ‘死胖子’인 속된 표현으로 발화 그대로 자막으로 사용했다.

양국에는 제작진이 비속어를 발화 그대로 만든 자막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자막들은 제작진이 수정하거나 자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능프로그램의 오락성을 위해서 자막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 고의 4편의 프로그램은 주말 예능프로그램이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모두 관람이 가능하여 이런 자막은 올바른 언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작진의 정확한 수정이 필요하다.

2.2 외래어·외국어 표현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단어’를 말한다. 한국어 어휘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에서 연구한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약 4.7%이지만 실제로는 영어계 외래어를 중심으로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표6>와<표7>에서 보듯이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외래어·외국어 표현 조사 항목에서 사용되는 자막은 559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외국어 표현은 58건으로 많지 않았다. 아래 예들을 보면서 살펴보자.

(14) 가. 아니야 어후 티셔츠 뭐야

역시 어느 캐릭터든 완벽소화!

오늘의 댄스는 현대 무용으로 제 이름을 표현하는...

머리스타일은... 손예진 같다...

나. 예능신들의VIP 파티

노래부분 I LOVE YOU

IQ 가 어떻게 돼요?

To.PD양반 비트 주세요

No팡손 기원 이번엔 다를 수 있잖아요

Miss

다. 의자 뺏기 中 앞사람 어깨에 손 올리라 그랬잖아요?

둘 다 死어

이래도 어류 중엔 미똥

어이無 레깅스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일본어 오이시이 (맛있다)~

라. STOP! /wow / Bang / why

李晨 vs 王力宏

이천 vs 왕리홍

鄧超 out

덩차오 out

위(14)에서 보듯이 (14가)에서 ‘티셔츠, 캐릭터, 댄스, 스타일’ 모두 왜래어 자막들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면, ‘티셔츠’는 ‘T’자 모양으로 생긴 반소매 셔츠라고 하고, ‘댄스’는 서양식의 사교춤을 말하며, ‘캐릭터’는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를 말한다. (14나)의 경우 자막 ‘ I LOVE YOU, VIP, IQ, To.PD, No, Miss’들은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영어 표현의 외국어 자막들이고, (1다)의 경우 자막 ‘中, 死, 無, 오이시이 ’은 중국어, 일본어 표현의 외국어 자막들이다. (14라)의 경우 ‘ STOP! /wow /

Bang / why, vs, out ' e들은 중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외국어 표현의 자막들이다.

한·중 외래어·외국어 표현들을 보면 한국은 외래어 경우의 자막들이 많이 나타났고, 외국어 표현의 자막들은 양국은 모두 나타나지만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이 더 많았다.

2.3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2.3.1 띄어쓰기

<표17>과 <표18>에 보듯이 양국의 예능프로그램의 자막들은 띄어쓰기 문제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띄어쓰기 오류 자막건수가 전반 지적 자막 건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한국보다도 더 많이 노출된다. 아래 한중 예능프로그램에서 띄어쓰기 표현에서의 자막들을 분석해 보자.

(15) 가. 누.나. 나.꿈.뛰.떠.귀.신.꿈.뛰.떠 그.러.니.까.소.고.기.사.조
오.빠.야. 내.억.수.로.좋.다 내.랑.결.혼.하.면.안.되.나?
결.혼.하.자. 오.빠.야~
나 는 조 크 할 거 야 아 조 크 조 크
예능신파티에오는걸환영합니다

(15가)의 경우 제작진은 매 단어 마다 마침표를 사용해서 띄어 쓰거나 매 단어 마다 띄어 써서 자막으로 표현했다. 이 경우는 중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선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무한도전'에서 '예능신파티에오는걸 환영합니다'처럼 단어를 모두 붙여서 자막을 만들었다.

(15) 나. 저러다 누 가 배신한다 → 누가

대박 진 심 → 진심

그런데 거 짓 → 거짓

흔비 백산 → 흔비백산

무 효 → 무효

절 망 → 절망

소곤 소곤 → 소곤소곤

어이 없이 이렇게 정말 끝이야...? → 어이없이

슬금 슬금 → 슬금슬금

왜 자 꾸 → 자꾸

과 연 → 과연

또한 (15나)의 경우 자막 “누가, 진심, 거짓, 흔비백산, 무효, 절망, 소곤소곤, 어이없이, 슬금슬금, 자꾸, 과연”을 보면 모두 하나의 단어를 띄어 쓰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된다고 했다. 또한 품사로 보면 명사, 부사의 띄어쓰기 오류들이다. 중국의 자막에는 단어의 오류 많지 않았다.

(15)다. 秋 袴 → 秋袴

보온 속옷

心 虛 → 心虛

안절부절 못하다.

認 命 → 認命

운명으로 여기다.

라. 恍恍 惚惚 → 恍恍惚惚

흐리멍덩하다.

歡迎 歡迎 → 歡迎歡迎

매우 환영합니다.

贊嘆 贊嘆 → 贊嘆贊嘆

매우 찬탄하다.

惊嘆 惊嘆 → 惊嘆惊嘆

매우 경탄하다.

嘒瑟 嘒瑟 → 嘒瑟嘒瑟

매우 잘난척하다.

(15다) 에서 보듯이 '秋袴, 心虛, 認命' 모두 하나의 단어를 띄어 쓴 예들이다. 중국의 두 편의 자막에서 총 세 개만 나왔다. 다음은 중첩현상에서 띄어쓰기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15라)에서 '恍恍惚惚, 歡迎歡迎, 惊嘆惊嘆, 嘒瑟嘒瑟' 이는 모두 형용사와 동사 중첩현상인데 주로 동사 중첩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중 '嘒瑟嘒瑟'는 방언인데 형용사 중첩현상으로 한 건이 나왔다.

(16) 가. 김중국씨?

유난히 감정이 부각됐던 준하 연기 정과장

잘못된 만남의 표본 만 오빠&막내 석진&하영

대왕멸치는 뭘 데 →대왕 멸치

(16가)의 경우 자막 ‘김종국씨?, 정과장, 만 오빠’은 띄어쓰기 오류들이다. 한국어 맞춤법에 의하면, 성과이름, 성과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했다. 즉 이 자막들을 바르게 쓰면 ‘김종국씨?’는 김종국 씨로, 정과장은 정 과장으로, 만 오빠는 만오빠로’ 쓰여야 한다. 자막 ‘대왕멸치는 뭐 데’에서 ‘대왕멸치는 출연자의 외모에 대해 비유한 표현이다. 맞춤법 표준안에 따르면 명사와 명사는 복합명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옳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복합 명사는 띄어 쓴다고 했다. 중국 자막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

(16) 나. 환 런닝맨 첫 출연 영

격한 와~ 환영 선빈이다
살 잡아 려 잡아 줘 잡아
경 펀치 1등 검증 성공 축
정 장난치지 마 색 지금 너랑 장난칠 기분 아니야
어쩔 수 킹하고 조커는 없다 우리가 정해 야 될 거 같다
단 아냐! 아냐! 호 어쩔 수 없어!
단 넌 잡혔어 하면 잡힌 거고 순 내가 잡았어 하면 잡은 거야!
 果然是 鄭·灵魂畫手·愷
 과연 정카이의 영혼 화손

(16나)의 경우는 모두 한 개의 단어를 문장 속에 분리 되게 넣어 자막을 만든 것이다. 자막에서 ‘환영, ‘격한 환영, 살려줘, 경축, 정색, 어쩔수 없다, 단호 , 단순’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그중 ‘환영, 경축, 정색, 단호, 단순’ 은 어근 형태로 자막을 만들었다. 한국은 이런 형태의 자막이 많이 나타나지만 중국의 예능프로그램에는 한 건만 있었다. ‘달려라’에서 ‘鄭愷’ 출연자

의 이름을 띄어 사용했다.

(16) 다. 출세했다<무한도전>까지 나오고!

의욕최선을 다해야죠 처음이라

떴다 자석인간

썩둑 안하실거면 그만 하세요 두 분 다

(16다)의 경우는 모두 서술어를 주어의 앞에 나오는 자막들이다.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 주어’ 인데 제작진은 자막을 돋보이게 하게 하기 위해 주어의 앞에 서술어를 놓아 강조 하는 역할을 한다. 구본관(2015)에서 주어는 서술어 앞에 나오는데 만약 강조 등 문체적 효과를 주기 위해 서술어를 주어 앞에 쓸 때에는 서술어 뒤에 약간의 휴지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자 언어에서는 서술어 뒤에 반점(.) 써서 이를 반영한다고 했다.

아래 중국 예능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자막들을 보면,

(17) 가. 你的良心 不會痛嗎?

너의 양심은 아프지 않니?

這理由 滿分

이 이유 만점.

這位 厲害了

이 분 대단하다.

你的小臉袋 不會紅嗎

너의 작은 얼굴은 빨개지지 않니?

광수빼고 화기애애하게 레이스 종료

오늘 밥사랴.. 커피사랴.. 너무 고마웠어 팽수야 ㅎㅎ
형!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립니다!

(17가)의 자막의 경우는 모두 ‘주어+술어’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들이다. 자막 ‘你的良心 너의 양심은’은 주어이고, ‘不會痛嗎? 아프지 않니?’은 술어여서 정확한 문장은 ‘你的良心不會痛嗎?’여야 한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도 ‘주어+술어’ 형태의 자막들이 나왔다. ‘런닝맨’ 경우 ‘광수빼고’를 ‘광수 빼고’, ‘소리가상당히’를 ‘소리가 상당히’로 띄어써야 정확하다. ‘무한도전’에도 ‘형! 시작하자마자’를 ‘형! 시작하자마자’로 띄어써야 올바르다. 이런 형태의 경우는 중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는 이런 형태의 자막이 많지 않았다.

(17) 나. 公爵秒變 李老頭

공작이 순식간에 이 할아버지로 변한다.
難道是 我的搭檔?!
설마 나의 짝꿍인가?
踩到 自己的气球
자신의 풍선을 밟았다.
气球是 我的 誰都搶不走
풍선은 내 것이다. 누구도 못 뺏는다.

(17나)의 경우는 모두 ‘술어+목적어’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들이다. 자막 ‘公爵秒變 李老頭’에서 ‘變’는 ‘변한다’는 동사로서 술어이고, ‘李老頭 이 할아버지’는 목적어이다. 하여 정확한 문법은 ‘公爵秒變 李老頭’여야 한다.

(17) 다. 不行不行 我都 看不下去了

안 돼 안 돼, 나도 볼 수가 없다.

我都 控住不住自己了

나는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어.

什么都不能 阻止我唱歌

무엇이든 나의 노래 막을 수는 없어.

只能 先下手了

어쩔수 없이 먼저 손을 썼다.

(17다) 는 ‘부사+술어’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인 자막 ‘不行不行 我都 看不下去了’에서 ‘都 모두’는 부사이고, ‘看不下去了’는 술어이다. 자막 ‘什么都不能 阻止我唱歌’는 ‘조동사+술어’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이다. 여기서 ‘能’은 ‘할 수 있다’는 조동사이고 ‘阻止’는 ‘막다’는 동사여서 술어이다. 따라서 정확한 문장은 ‘什么都不能阻止我唱歌’이다.

(17) 라. 懇切的 小眼神

간절한 작은 눈빛

灵活的 小赤赤

민첩한 작은 혁혁

(17라)에서 자막 ‘懇切的 小眼神 간절한 작은 눈빛’, ‘灵活的 小赤赤 민첩한 작은 혁혁’ ‘수식어+명사’하는 경우도 있다.

2.3.2 부정확한 어휘

(18) 가. 절대 전혀 약속합시다

드루와 드루와 드루와 → 들어와

저절로 고개 숙이게 하는 얼굴깡패

(18가)에서 자막 ‘절대 전혀 약속합시다’에서 ‘전혀’는 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낱말과 함께 써야 되는데 자막에서는 ‘약속합시다’란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해서 부적절하다. 자막 ‘드루와 드루와 드루와’에서는 ‘들어오다’가 ‘들어와’로 활용된 것인데 자막에서는 ‘들어와’ 발음과 비슷하게 발화했는데 제작진은 그대로 자막으로 제작 했다. 또한 자막 ‘저절로 고개 숙이게 하는 얼굴깡패’에서 ‘깡패’는 본래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최근에는 유행어로 ‘○○깡패’로 ‘누구보다 그 분야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으나 자막으로 이 단어 사용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8) 나. 莫什么扎什么特

모뽀차뽀르트

轉身爭脫

돌아서 벗어나다.

行走的肌肉

걸어가는 근육

(18나)에서 자막 ‘莫什么扎什么特’은 제작진이 프로그램의 오락을 주기

위해 출연자의 발화를 그대로 구어체를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轉身爭脫’에서는 ‘벗어나다’는 단어는 이 ‘爭脫’가 아니라 ‘掙脫’이다. 다음 자막 ‘行走的肌肉’에서 ‘肌肉’는 근육이라는 것인데 근육이 걸어갈 수 없으므로 이 자막은 비문인데 제작진은 흥미를 유발 위해 근육을 의인화해서 사용했다.

(18)다. 端庄 端庄 → 端端庄庄

단정하고 장중하다.→ 매우 단정하고 장중하다.

開心 開心 → 開開心心

즐겁다. → 매우 즐겁다

愧疚 愧疚 → 愧愧疚疚

부끄럽다.→ 매우 부끄럽다.

(18다)의 경우는 형용사의 중첩⁷⁾ 현상이 틀린 자막의 예들이다. 형용사의 중첩은 단어의 정도가 심화된다. 하여 제작진은 형용사의 중첩으로 출연자의 상태나 심리 상태를 표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2음절 형용사의 중첩 형태는 AABB 이므로 자막에서 ABAB 형태로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자막은 이런 부정확한 단어 사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언어를 배우는데 장애가 된다.

(18) 라. 당황 왜 나한테만 이래?

포기? 아 정말 탐나는 이마인데...

살벌 우리 또 이거 찰지게 잘 때리

제가 우성이 형 등에 손 올렸거요 자랑

환영 못 · 친 · 소

7) 黄伯荣·廖序东 (2011)에서 일부 형용사는 중첩할 수 있다. 즉 형태의 변화로 性状정도의 심화되거나 알맞음을 말한다.

(18라)의 경우는 동사 어근 종결형 자막이다. ‘런닝맨’에서 ‘당황, 포기, 살벌, 자랑, 환영’ 이 자막들은 모두 동사 ‘당황-하다. 포기-하다. 살벌-하다. 자랑-하다. 환영-하다’ 의 어근이다. 문장에서 보면 동사로 쓰여야 하는데 제작진은 어근 형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18)마. 민망

어색 어색

괜 애먼 사람 짝는 예능신

벌컥벌컥 지금 생각해도 황당

괜히 서운

(18마)의 경우는 형용사 어근 종결형 자막이다. ‘민망, 어색, 괜, 황당, 서운’ 은 모두 ‘민망-하다, 어색-하다, 괜-하다, 황당-하다, 서운-하다’ 의 어근들이다. 문장에서 보면 형용사로 쓰여야 하는데 제작진 어근 형태도 시청자들의 주의를 끈다. 한국은 어근 종결형 자막이 많이 나타났다.

(18) 바. 해맑 너무 잘봤습니다

쑥스럽

(18바)는 어간 종결형 자막들이다. 자막 ‘해맑 너무 잘봤습니다’와 ‘쑥스럽’에서 ‘해맑’은 ‘해-맑다’의 어간 종결형 자막이고 ‘쑥스럽’은 ‘쑥스럽다’의 어간 종결형 자막이다.

(18라~바)의 경우는 모두 한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나오는 사례들로, 중국 방송 자막에서는 이와 같이 형용사 어근을 사용하는 현상은 없다.

IV. 결 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유사한 형식의 한중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각각 두 편을 연구 대상으로 자막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자막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유발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막은 프로그램의 개성을 들어 낼 뿐만 아니라 흥미 유발과 시선 집종의 기능으로 제작진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시청자와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가치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기능과 다채로운 자막 표현들은 여전히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자막 사용이 주는 피로감도 없지는 않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자막 빈도수를 연구한 결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전환 건수는 3~4초에 한번 씩 노출되는 데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의 전환 건수는 6~7초에 한번 씩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 건수는 중국 예능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 건수보다 많다. 양국의 예능 프로그램의 유형별 조사 결과, 양국의 제작진의 의도[-]의 자막 건수는 모두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 보다 적다. 즉 양국의 예능프로그램 모두 제작진의 의도적인 개입이 많으며, 자막을 통한 흥미 유발을 하여 시청자들을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보인다. 제작진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언어 환경을 만드는 데 제작진의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작진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는 양국은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제작한 자막이 모두 간접적으로 개입한 자막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극한도전3’에서는 제작진의 직접적으로 개입한 자막 건수와 간접적으로 개입한 자막 건수가 비

슷한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진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한국의 자막 건수는 총 465건이고, 중국의 자막 건수는 총 200건으로써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제작한 제작진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자막 건수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제작한 자막 건수 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발화’ 자막 부분에서의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 건수는 한국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제작진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발화’부분에서 한국은 대부분 멤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직접 자막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면 중국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출연자가 상해방언을 사용했는데 제작진이 그대로 자막으로 제작한 경우가 한 건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런닝맨’에서 멤버가 부산 방언을 사용하여 자막을 만든 경우가 한 건이 나타났다.

다음은 출연자가 예능프로그램에서 게임 할 때 발화한 내용을 자막으로 한 경우에는 한국의 ‘런닝맨’과 중국의 ‘달려라’에서 나타나고 ‘무한도전’과 ‘극한도전3’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멤버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연자들이 서로 대화할 때 출연자의 발화 자막들이다. 양국은 모두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극한도전3’에서 비교적 많이 나왔다. 양국은 의성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중국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연자가 한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자막 경우, 한국은 출연자의 반복된 발화를 회수에 따라 숫자를 덧붙이는 자막이 나타났지만 중국의 두 편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서술어+주어’의 형태가 나타났지만,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없었다. 또한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출연자의 발화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문장들을 자막으로 제작

한 현상이 많았다.

제작진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인용'부분에서 먼저, 출연자의 발화의 내용을 요약해서 원래의 발화보다 짧은 자막의 경우는 양국의 모두 나타났고, 그 중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영어를 대신하여 자막을 만드는 경우가 한 건이 나타났다. 다음은 출연자의 짧은 문장들을 정리하고 개괄하여 발화내용의 중심내용을 자막으로 인용하는 경우,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두 명의 출연자들의 발화한 문답 형식을 제작진이 개괄하여 하나의 자막에 발화자의 내용들이 모두 표현되는 자막이 있지만 이는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의 예능프로그램에는 개개의 짧은 문장들의 내용을 개괄하여 하나의 짧은 자막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의 발화 내용보다 더 길게 제작한 자막들의 경우, 양국은 모두 나타났고, 제작진은 발화 내용의 앞부분이나 뒤 부분에 개관적인 사실을 추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제작진 의도가 있는 경우, '간접'부분에서 출연자의 발화내용과 완전히 다른 경우는 양국이 모두 나타났다. 다음,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은 출연자의 발화내용에 어근, 어간, 단어 혹은 구를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발화자의 표정, 행동을 묘사하고 심지어 발화자의 심리 생각마저 분석한다. 이 경우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나타났지만, 중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자막에서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 어근, 어간이나 단어를 넣는 현상이 있고, 일부 경우 자막의 가운데 있거나 한 개의 단어를 분리하여 사용한다. 또한 자막의 앞부분에 구를 넣는 현상이 많고, 뒤 부분이 구를 분리하여 넣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반면, 중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은 대부분 출연자의 발화내용을 가공한 후 자막에 단어나 구를 추가하는 현상이 많았고, 자막의 앞부분에 구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고 뒤 부분의 경우는 많지 않다.

‘직접’부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의 행동, 표정, 생각, 등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자막들은 양국이 모두 존재한다. 다음, 제작진은 직접 예능 프로그램에 개입하여 출연자의 발화에 직접 대응하는 발화를 자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양국이 모두 존재한다.

다음 양국의 지적 자막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한국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도한 사용의 건수가 제일 많고, 다음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 오류의 자막건수의 사용이 많다. 반면 중국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도한 사용의 건수가 제일 적었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 오류의 자막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에서의 비하·차별적 표현이 한국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비속어 사용은 양국은 모두 적었다.

그 다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름 별명 단어 자막 사용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 자막들을 조사한 결과 양국은 외모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중국은 성 앞뒤에 비하하는 단어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고, 성격에 대한 비하적인 이름 별명 자막들이 대부분이다. 한중 외래어·외국어 표현들을 보면 한국은 외래어 경우의 자막들이 많이 나타났고, 외국어 표현의 자막들은 양국은 모두 나타나지만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이 더 많았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작진이 매 단어마다 마침표를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시선 집중하는 효과를 한다. 이 경우는 중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선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품사로 보면 명사, 부사의 띄어쓰기 오류도 나타났다. 중국은 주로 ‘주어+술어’ 자막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 ‘술어+목적어’ 자막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 ‘부사+술어’ 자막 형태의 띄어쓰기 오류, ‘조동사+술어’ 자막 형태

의 띄어쓰기 오류 현상이 있다.

부정확한 단어 사용을 보면, 한국 예능프로그램에는 어근 종말형, 어간 종말형 자막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중국 예능프로그램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없었다. 두 나라 모두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한 자막이 많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사용 유형과 방법 분석을 통해 양국의 시청자들의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주고 건전한 자막을 만들어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양국의 4편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에만 한정 되어 자막 사용 양상을 분석한 점과 양국의 자막방법 분석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으로서 앞으로의 과제를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구본관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최종희(2017), 「달인의 띄어쓰기·맞춤법」, 국민출판사.
- 黃伯榮, 廖序東(2011),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

【국내 학술지논문】

- 강미영, 강승묵(2014), 「케이블방송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시각적 주의 - tvN <꽃보다 할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강연임(2007), 「오락 프로그램 지막언어의 유형과 기능」, 한국어문학, 한국어문학학회.
- 권길호(2012), 「TV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유형 분류 연구」, 우리말연구, 31집.
- 권성란(2005), 「매체 언어의 국어과 수용 방향 고찰-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교진(1999), 「방송보조자막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처리와 반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수연(2003), 「 방송 언어 표현의 분석과 말하기 교육에서의 적용」,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연(2013), 「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언어 사용 양상 연구」.상명대학교, 한국어 의미학 41,51~77.
- 김지우(2004), 「 방송 언어에 나타난 오용 사례와 개선 방안」,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영(2016),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막 사용 양태 분석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공연예술학 전공 .
- 김현영(2017), 「방송언어의 비표준어 사용 양상 연구-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예능에서의 음성표현과 자막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박사 논문.
- 남지영(2009), 「tv 자막언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서형 (2011), 「텔레비전 방송 언어의 오용 사례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학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변영수(2008),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자막의 표현 형식 연구-<무한도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 방송심의기획팀(2015), 「주중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막 사용 실태 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지영(2015), 「텔레비전 자막 자료 분석을 통한 맥락과 비문법성 수인 관계 고찰」, 한국어 학회
- 윤진서(2015), 「TV 예능프로그램의 자막 사용에 대한 연구」, 텍스트 언어학 39, PP 233~260
- 이성범(2011), 「의사소통 행위로서 tv 방송 자막의 언어학적 고찰」,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 석사학위 논문.
- 이성(2003), 「프로그램 유형별 방송 자막의 활용 현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양(2005)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TV 영상 자막의 분석」, 성심어문논집(제27집).
- 이충규(2016),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 대조연구」, 일본문화학보, 68.

- 이혜연외(2009), 「수용자의 프로그램 해석에 있어서 자막이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 조수선(2013), 「방송의 문자정보 유형과 표현사례 연구: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6, 동서언론학회.
- 주미령(1999), 「제작진의 의도와 리듬 함께 타기」, 방송위원회, 방송과시청자.
- 한성우(2004), 「텔레비전 자막의 작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홍경수(2000), 「시청률 압박이 프로듀서의 tv 자막에 대한 인식과 사용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kbs tv 프로듀서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준식(2004),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자막 사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영상매체전공, 석사논문.

【국의 학술지 논문】

- 戴穎洁 (2015, 「韓國綜藝節目模式本土化探析」, 視聽縱橫, 期刊.
- 陳建新 (2004, 「電視字幕的作用及其制作」, 電視字幕：特技与制作, 第10期.
- 靖秋 (2014, 「引進電視節目：有形无形是形神兼備-中韓兩版真是綜藝節目《兩天一夜》的對比研究」傳播學, 碩士.
- 計服貫 (2013, 「電視娛樂節目語言研究」, 文學与新聞傳播學院, 碩士.
- 李美慧 (2016, 「試論字幕娛樂化效應對綜藝節目的影響」, 現代視聽, 傳播實務.
- 李江陸 (2014, 「《爸爸去哪儿》字幕組走紅解析」, 广播影視評論, 期刊.

- 李淑萍，勒英龍（2007），「淺析字母在電視專題節目制作中的作用」，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第25卷，第4期。
- 李曉婧（2015），「我國大學生受眾對韓國綜藝節目的解讀」，山西大學，新聞與傳播。
- 李熙遠（2015），「韓國引進節目《奔跑吧兄弟》與原版節目對比研究」，傳播學院，戲劇與影視學。
- 婁婉子（2015），「我國電視真人秀節目字幕綜合應用研究」，新聞與傳播，碩士論文。
- 孫偉聰，楊璐（2014），「字幕：綜藝節目《爸爸去哪兒》中的視覺新要素」，濰坊學院學報，期刊。
- 孫珊珊（2015），「韓國明星真人秀節目的中國本土化研究」，影視傳播學，碩士。
- 騰飛，陸丹（2015），「從《奔跑吧兄弟》字幕看綜藝節目的包裝」，北京師範大學研究生院，今傳媒，第3期。
- 許之民（2007），「電視字幕的規範性研究」，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徐璐（2013），「電視字幕問題研究」，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 王聰聰（2015），「字幕在電視娛樂節目中的作用」，視聽專論。
- 閻姝鑫（2015），「媒介跨文化傳播中的文化差異」，新聞與傳播學院，期刊。
- 岳秀文（2008），「潛台詞字幕：電視娛樂節目中的新語言賣點」，安慶師範學院學報。
- 趙玉明，王福順編（1999），「廣播電視辭典」，北京廣播學院出版社。
- 張靖（2014），「電視語體研究視角下的電視字幕分類」，現代傳播，第9期。
- 張靖（2011），「淺談電視節目中的滾動字幕」現代傳播，第3期。

【사전류】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주)두산동아.

「新華詞典」(2001), 修訂版, 商務印書館.

「現代漢語詞典」(2011), 高等教育出版社·北京.



국문초록

자막의 원래의 기능은 청각장애자거나 노인 그리고 녹음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일종 보조 수단인데 현재는 발화자의 농담, 심리상태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방송언어와 관련된 반말과, 사적 호칭, 비속어, 비하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외래어 등 출연자의 문제적인 발화를 그대로 자막으로 표현한다. 또한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막의 유형 분류가 연구자마다 다양하여 제작진의 의도성 경계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하였는지를 밝히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4편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을 서사분석의 시점(point of view)을 도입하여 제작진의 프로그램 자막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작진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와 제작진이 관찰자적 관점에서 자막에 등장하는 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양국의 자막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고, 자막의 개념, 유형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제 3장에서는 먼저 양국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현황에 대해 연구했다. 양국의 자막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 건수는 중국 예능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 건수보다 많다. 또한 양국의 자막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양국의 제작진의 의도[-]의 자막 건수는 모두 제작진 의도[+]의 자막 건수 보다 적다. 제작진의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는 양국은 제작진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제작한 자막이 모두 간접적으로 개입한 자막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예능프

로그래밍 자막에서 제작한 제작진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자막 건수는 한국의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서 제작한 자막 건수 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양국의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의 자막방법 분석에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 외래어·외국어 과다 사용,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양국의 지적 자막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한 사용의 건수가 제일 많고, 다음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 오류의 자막건수의 사용이 많다. 반면 중국은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과다한 사용의 건수가 제일 적었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 오류의 자막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에서의 비하·차별적 표현이 한국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비속어 사용은 양국은 모두 적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름 별명 단어 자막 사용이 가장 많았다. 한중 외래어·외국어 표현들을 보면 한국은 외래어 경우의 자막들이 많이 나타났고, 외국어 표현의 자막들은 양국은 모두 나타나지만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자막이 더 많았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에서의 띄어쓰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작진이 매 단어마다 마침표를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시선 집중하는 효과를 한다. 이 경우는 중국 예능프로그램 자막에선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품사로 보면 명사, 부사의 띄어쓰기 오류도 나타났다.

부정확한 단어 사용을 보면, 한국 예능프로그램에는 어근 종말형, 어간 종말형 자막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중국 예능프로그램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없었다.

제 4장에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